

태권도를 통한 희망의 발견 : 전쟁 중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의 대회 출전 과정의 함의

전민우¹ · 김나혜^{2*}

Discovery of Hope through Taekwondo: The implications of Ukrainian Poomsae players' participation in competitions during the war

Jeon, Minwoo¹ · Kim, Na-hye^{2*}

1. Adjunct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mnahye@shinhan.ac.kr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2024.01.30.

Revised 2024.02.28.

Accepted 2024.03.31.

Keywords:

Russia-Ukraine War, taekwondo, poomsae, Meaning in Life, Hope, qualitative case stud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process of Ukrainian Poomsae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nd its meaning. The method data collection period was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2022 for Ukrainian taekwondo athletes who visited Korea, and an inductive category analysis was conducted.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oomsae competition was classified into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suspension of daily life, the rough process of moving to participate in the taekwondo competition, and the process of satisfaction by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after a short training period. In this experien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experience was derived from frustration in their daily lives, the process of experiencing the turning point of life of planning an independent lif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representing Ukrain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war, which had been illuminated from a macro perspective, found meaning in individual experie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Слава Україні(슬라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군대의 경례 구호가 202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하였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에 사용된 이 경례 구호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투쟁의 역사를 반복해 온 인류 사이지만, 탈냉전시대를 맞이한 뒤 화해와 협력을

모토로 안정적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었기에(오일환, 정경환, 2023),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전 세계에 불안한 체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며 공분을 샀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간인이다.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24개월 이상 항전하고 있지만, 경제, 교육,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면서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o-Ukrainian War; 이후 러우전쟁)' 발발 후 약 1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한겨레, 2023), 587만 3천여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하였다(UNHCR, 2023). 난민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들로, 낯선 타지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등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국제 대회 참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원 보증, 출국 허가 및 체계적인 훈련 과정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18세부터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어(연합뉴스, 2022.2.25.) 대회 출전을 위한 출국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전장이 되어버린 일상 속에서 양질의 훈련을 실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스포츠는 표면적으로 비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 속성과 불가분적인 관계가 나타난다(유호근, 2013). '러우전쟁'이 벌어진 직후 스포츠계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러시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보이콧하고, IOC는 휴전 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BBC, 2022), 세계 평화를 위협한 러시아의 대외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스포츠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일반적 상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였다. 태권도계는 일찍이 태권도를 통한 세계 평화를 지향해 왔으며, 이는 태권도박애재단(2016)이 시리아 난민을 교육하여 세계태권도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나(박강수, 2023.6.2.), 스포츠 종목 봉사단체인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TPC)이 태권도를 통한 평화 운동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정국

현, 원동현, 2019). 이는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한국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태권도를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러우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로서도 품새 선수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전쟁 피해자의 삶을 심도있게 조망하여, 태권도 대회 참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 피해자, 난민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22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린 '2022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품새단의 대회 출전 과정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022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춘천오픈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대회로, 60여개국 3천여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WT 인준 세계랭킹 G2등급 국제대회이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총4인이었으나,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인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대회 기간 중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품새 종목에 참여하였으며, 공인품새와 일반부 단체 품새 부분에 참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구분	나이	성별	직업	비고
A	40대	남	태권도 사범	코치
B	20대	남	대학생	선수
C	20대	여	대학생	선수

2. 자료수집과정

심층면담은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해 이들이 입국하여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과정부터 대회 종료 후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함께 한 연구자가 충분히 라포를 형성한 뒤에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에서 약 1시간 정도 3차례에 걸쳐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공간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에서 머무르는 공간에서 근접한 장소에 위치한 공용 공간과 회의실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한 뒤 전사 작업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크게 국제 대회 출전 계기, 전쟁으로 인한 변화 및 출전 과정 및 경험, 출전을 통한 변화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대체로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통역자가 함께 하였다. 통역자는 영어에 능통하고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한국에서 인솔자로 역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3.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는 Patton(2015)의 귀납적 범주분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정독하고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요약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개념을 범주화하여 개념화 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역자가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고 정리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 고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통역자가 재확인(member check)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둘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질적연구자에게 분석 자료에 대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받는 등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동료 간 협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고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 2인과 함께 검토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와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Guba & Lincoln, 1994).

넷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인터뷰시 반구조화 된 세부 연구 질문지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과정 및 특이사항을 메모하여 정리 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강조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가 전쟁을 경험하였음을 고려하여 실제 현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질문이나 단어의 사용에 주의하였고, 실제 현상을 적절히 서술하고 있는지를 문헌과 연구참여자 간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분석 이후 일반적인 연구 자료들과 비교하며 일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러우전쟁 중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태권도대회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 국가의 한 개인이 대회 출전을 통해 이어지는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품새 대회 출전을 위한 여정

1) 전쟁의 시작, 사라진 일상

연구참여자들은 전쟁 이전에 대학에서 체육계열을 전공하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의의를 듣거나, 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사범 생활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품새 선수로서의 꿈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품새 훈련을 해왔다고 언급하였다.

전 11시쯤 태권도장에 가서 개인 운동을 한 다음에 오후에 대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보조 사범 일을 하며, 품새를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C)

저는 스포츠지도학과에서 트레이닝을 배웠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대학의 체조장에서 자유품새를 개인적으로 운동했습니다. 대학교 일과가 끝나면 3시 반쯤 도장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품새를 훈련했습니다. (연구참여자 B)

이들은 20대의 청년들이 그렇듯, 미래를 위해 대학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품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하루의 일과에 반드시 품새 훈련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이는 생활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은 대학과 품새 훈련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품새 도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태권도 사범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만 2만명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있기에(연합뉴스, 2018),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로 모두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전쟁이 발발할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경고 없이 이루어진 공습이었기에, 내일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전쟁을 맞이하였다. 새벽에 시작된 전쟁이기에 그 순간 자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인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것이었다.

그날은(전쟁 발발일) 잠결에 부모님이 다급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피난을 가는데, 도로가 마비된 것 같았고 아빠가 동봉이를 들고 다른 피난민들과 고함을 치며 싸웠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죠. 폭탄은 계속 터지고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울었어요. 잠도 잘 수 없었고요. (연구참여자 C)

오전 7시 반쯤에 2주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고, 이후 더 오래 휴교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월 중순부터 영상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4명에서 5명 정도였고, 교수님들도 출석을 관대하게 인정해주셨습니다. 모두 피난을 가고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

삶의 터전을 떠나 우크라이나의 후방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연구참여자 A와 연구참여자 C는 전쟁의 위협을 거의 모든 순간에서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나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축구 영웅인 안드리 셰브첸코는 폭격이 지속되는 장소이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자유, 정신, 신조를 지키기

위험이라고 인터뷰하였다(김우중, 2022.3.4.). 이 밖에도 피난을 가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 노인들은 접경 구역까지의 험난한 이동 과정과 삶의 터전을 떠나 이방인이 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향을 떠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B는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로 피난을 가면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다.

기차와 버스로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를 거쳐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 스위밍 같은 아르바이트와 서빙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품새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집트에서 친절히 도와줘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연구참여자 B)

지리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이자 곡식과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이기에, '러우전쟁'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지원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은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808만여명이 난민 생활을 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난민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정철환, 이민석, 2023.2.23.).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것처럼 NATO 가입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호의적으로 난민을 수용해 왔지만, 수용국의 인도적 지원이 포화상태가 되어 전쟁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안희, 2023.2.20.). 난민을 수용한 국가와 난민 모두 인간다운 삶, 일상의 당연함이 간절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 삶을 위해 중단한 태권도

연구참여자들은 전쟁으로 오랜 기간 태권도 수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의 일과처럼

수련했던 품새를 기억에서 지우고, 하루하루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약없이 길어지는 전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뒤 거의 태권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창작하는 재미가 있어서 품새를 열심히 했고, 이를 대회에 나가서 보여주는 것이 좋았지.. 전쟁 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정착하기 바빴습니다. (연구참여자 B)

키우에 남은 친구와 가족들이 생각나서 너무 걱정되고 슬펐어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던 아이들도 생각났지만, 미래에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거든요. (연구참여자 C)

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훈련에 매진하며 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길어지는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희망적이지 않았다. 상실감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힘겨운 나날이 이어진 것이다(국경없는의사회, 2022.12.14.). 특히, 항공이 봉쇄되고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남자 선수와 코치는 해외 출국에 제약이 생겼고(연합뉴스, 2022.2.25.), 태권도 하는 삶과 멀어져 간 것으로 판단된다.

3) 태권도로 맺은 인연이 준 태권도 할 기회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로 맺은 인연을 통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피난을 가게 되면서 선수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터라 연락이 어려워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극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된 대회 출전 지원 소식은 전쟁 후 처음 마주하게 된 희망이었다.

선수들이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높았습니다. 대회 출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생각난 사람들

이었죠. 기량도 뛰어나고, 성실하게 훈련에 전념해 왔다는 것을 알기에 꼭 두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소문 끝에 대회 출전 소식을 알릴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

인터넷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연락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너무 설레었습니다. 공터를 찾아 품새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가 없었지만, 혼자서라도 품새에 몰두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연구참여자 B)

이들의 대회 출전 지원은 KOICA의 단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던 임승민 사범(이하 임사범)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전에도 임사범은 우크라이나 태권도의 발전을 후원해 왔으며, 전쟁 발발 후 직접 모금활동과 기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학, 2022.6.30.). 임사범은 우크라이나와 태권도를 통해 맺은 인연으로 선수들에게 다시금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준 것이다.

여권이 6월 초에 만료되었어요. 행정기관이 마비되다보니 여권을 갱신하고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임사범님과 한국에서 도와준 덕분에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죠. 시간이 촉박했지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C)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기도 하였지만,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물론 이시간에 훈련을 할 수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연구참여자 B)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훼손되고 국가 인프라가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삶을 생존 활동을 위해 소비하게 되었다. 품새 대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품새 선

수라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하루 중 늘 일정한 시간을 품새를 훈련하며 성실히 보내던 연구참여자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중단하게 된 후 상실과 막막함으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김현진, 조현철, 2017). 그러던 와중에 임사범과 '2022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 초국가적 단체인 WT는 유기적인 지원체제로 연구참여자의 품새 대회 참가를 현실화 하였다. 즉, 품새 대회 참가라는 목표는 삶의 의미가 되어 다시금 삶을 이어 나아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철나의 만족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주일 간 대회를 준비하였다. 전쟁으로 오랜 기간 품새 훈련을 중단하면서 기량이 떨어졌음을 느꼈지만, 오히려 품새 훈련에 몰두할 수 있어 전쟁에 대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고 만족스러운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나는 과거에도 주니어로 코리아오픈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는 달리 4개월 정도 훈련하지 못하죠.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를 훈련한 것이 다 인데, 내 꿈이었던 대회에 더 늦기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연구참여자 C)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도 대회에 참여하니 감동적이고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망신 시킬까봐 걱정되었지만, 경기를 충분히 즐겼습니다.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훈련 기간과 훈련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경기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후원, 격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A)

전쟁이 없었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만족하는 것은 경기 출전의 가장 큰 목표가 우크라이나인들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B)

완벽히 갖춰진 상황에서 경기를 펼 수 없음에 한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만족한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다. 이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갖는 관심과 지원을 경험함으로써 공감을 통한 위로를 얻어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태권도 종주국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경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회 출전의 함의

1) 인생의 터닝포인트

연구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익숙한 것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국제 대회에 출전하게 하고,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전쟁 전에 나는 즐겁고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 하루는 내가 어느 도시가 초토화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시작해요. 다시 돌아가기 겁이 나지만, 가족들 곁에 있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훈련하고,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멋진 생일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전쟁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홈(모임 공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상의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품새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나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져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그들이 걱정되요. 그래도 품새 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태권도는 내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최소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그들을 위해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대회에 나오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순간을 이겨내 왔습니다. 많은 국경을 넘었으며, 전쟁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긴 시간을 보냈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고 경쟁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끔찍하지만, 나는 내가 태권도를 할 때 즐길 수 있음을 깨달았고, 나는 강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과 순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B)

전쟁은 인간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져온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겪었으나, 기적과도 같이 이루어진 품새 대회 참여 기회가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시 마주하게 될 희망을 엿본 기분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품새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설정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난민들에게 있어 스포츠를 통한 교육은 그들이 삶에 희망을 갖게 하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한다(Waardenburg 외 3명, 2019). 이러한 경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삶의 귀중한 시간을 전쟁 난민, 피해자로서만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게 하며, 삶을 진취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국제 품새 대회 참가를 통한 심리적 개선 뿐만 아니라, '태권도 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품새 훈련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품새를 이해하는 시간이 흥미로웠으며, 품새 대회 참가를 포기했다면 얻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언급하였다.

태권도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한국에서 훈련하면서 트레이닝법이나 품새 훈련법을 볼 수 있었고,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

꿈은 트레이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정해 놓은 진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아직은 무엇을 할지 정하지는 못하였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재미있고 흥미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체계적이고, 그곳에서 하지 않던 훈련을 해보게 되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범님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가서 태권도 사범을 하며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B)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단은 대회 전후에 한국에서 세계태권도품새트레이닝협회(WTPTA) 등과 협력해 전문 기술 훈련과 전쟁의 트라우마로 긴장된 선수들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 트레이닝도 함께 병행하였다(한혜진, 2022.6.30.). 전쟁으로 인해 바로 귀국하기 어려운 까닭도 있었지만, 품새

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된 프로그램이었다. 전쟁 이전까지 대학생으로써 선수 생활을 병행하던 때에 비해, 약 보름동안 한국에서 접한 트레이닝법과 품새 훈련법은 품새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쟁과 같은 극한의 공포와 무기력한 상황을 겪는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하여 오히려 터닝포인트로 삼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회 출전 및 품새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

연구참여자들은 국제 품새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항전의 정신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품새 대회에 다수 출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경기에 임하였고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전까지는 대회를 할 때 입상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품새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고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심도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세계 대회, 세계 무대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시상대 위에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만들어 고국에 힘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C)

그 어느 경기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A)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들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지원 체계와는 달리 국가의 선발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2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국제대회임에도 비교적 출전 제약이 적은 오픈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WT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운 자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국제 대회에 출전한 우크라이나의 대표로서 전쟁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간 관계나 난민법, 전쟁 피해국 등의 위치에도 국제적 엄격성을 내려놓고 국제 대회 출전이란 이유로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국경을 넘게 해 주었다는 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출전한 품새 대회는 전쟁의 심각성에도 스포츠적 허용이 적용되어 국제적인 이슈를 교류하는 자리로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IOC는 난민들로 이루어진 선수단의 출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기로 인해 국가적 피해를 본 난민들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IOC, 2021.6.8.).

한편,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들이 국제 품새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도출된 함의는 ‘러우전쟁’이 무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스포츠 대회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품새 대회에 출전한다는 사실에 다수의 언론사가 이들의 의지와 전쟁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으며, 반전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3명으로 구성된 소수의 우크라이나 품새단이었지

만, 전쟁 상황에서 이들의 도전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품새를 비롯한 문화적 형태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고유한 신체 문화인 태권도와 이를 활용한 국가 간 관계 개선 방안을 전략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러우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단이 국제 품새 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이 경험에 따른 의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새 대회에 출전하기까지의 과정은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 일상이 중단되고, 피난을 가게 된 여정이 나타났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적응 과정은 품새 수련을 어렵게 하였고, 태권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던 중 태권도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임사범과 대회조직위, WT,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품새 대회에 연구참여자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육로를 이용하는 험난한 이동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대회 준비 훈련에 돌입하였다. 짧은 대회 준비 기간동안 그 어떤 순간보다 몰입하여 대회를 준비했지만, 마침내 대회장에 섰을 때는 고난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알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신념을 전달했다는 뿌듯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에서는 일상에 안주하던 삶에서 전쟁으로 인한 좌절 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여 항전의 의지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명되던 전쟁이 양상을, 개인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의 폭력 상황에 노출된 우크라이나 국민이 품새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갈등 상황에서 태권도를 통해 초월할 수 있었던 여러 국제적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국제적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품새 선수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 추가 사례의 획득과 품새 종목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난민이나 전쟁 중에 놓여있는 태권도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내실화와 빠른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 관계에서 태권도 기관이 수행해야 할 인류애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국경없는 의사회(2022, 12월 14일). 우크라이나: 상실감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뒤덮인 전쟁 최전선. <https://msf.or.kr/article/ukraine-war-caught-between-frontlines-medical-care-for-the-elderly>
2. 김우중(2022, 3월 4일). 축구영웅 외침 "어머니·여동생 피난 가라고 해도 안가, 이게 우크라이나 정신". 스타뉴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030411175340884>
3. 박강수(2023, 6월 2일). 비극의 땅에 갇힌 난민 청년, 태권도가 그를 세상과 이어줬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094270.html
4. 박주경(2022).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전략연구, 제29권 제2호, 155-191.
5. 송병록(2017). 전쟁,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53-79.
6. 안희(2023, 2월 20일). [우크라전쟁 1년 ⑤] 800만 피란민 유럽 곳곳으로... "2차 대전 후 최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8002600088>
7. 연합뉴스(2018, 4월 16일). 우크라이나 '올해의 외교관상' 받은 이양구 대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6063500371>
8. 연합뉴스(2022, 2월 25일.). 우크라이나 국가총동원령. 18~60세 남성 출국금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32700009>
9. 오일환, 정경환(2023).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통일전략학회, 제23권 제1호, 9-31.
10. 유희근(2013). 스포츠 교류 · 협력의 국제정치 : 공공외교적 함의. 평화학연구, 제14권 제1호, 53-74.
11. 이상학(2022, 6월 30일). "전쟁 속 태권도대회 초청·환대 감사...평화 소중함 생각해주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20630228500062>
12. 정국현, 원동현(2019).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활동에 따른 수혜국 참여자의 만족도가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제10권 제1호, 73-92.
13. 정철환, 이민석. (2023, 2월 23일). 우크라이나 난민 808만명... 전쟁 1년만에 2차 대전 이후 최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

- /2023/02/23/SWQU72I7AVGW5F3ZLYAMNAEJ3Y/
14. 한겨레(2023, 8월 17일). 1년 6개월 우크라이나 전쟁...유엔 “민간인 사망자 1만명” 무카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4543.html
 15. 한혜진(2022, 6월 30일). [화제] 우크라 태권도 전쟁 참화 중 춘천 코리아오픈 출전. 무카스. <https://mookas.com/news/18488>
 16. BBC NEWS(2022, 3월 1일). 우크라이나 침공: 스포츠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519291>
 17.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18. IOC. (2021, 6월 8일). IOC 난민 올림픽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https://olympics.com/ko/news/everything-you-need-to-know-about-the-ioc-refugee-olympic-team>
 19. KBS(2023, 8월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자 50만 명 육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2222>
 20. Patton, M. Q. (2015).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4th ed). CA: Sage.
 21. UNHCR(2023). Operational Data Portal - Ukraine refugee situation. <http://data2.unhcr.org/en/situations/ukraine>
 22. Waardenburg, M., Visschers, M., Deelen, I., & Van Liempt, I. (2019). Sport in liminal spaces: The meaning of sport activities for refugees living in a reception centre.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4(8), 938-956.
 23. WT(2024). 2024년 세계태권도회장 신년사. WT 홈페이지. <http://m.worldtaekwondo.org/wtnews/view.html?nid=140879&sc=ne&w=213>

